
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8. 25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첨단물류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성수, 사무관 임승규, 주무관 송승섭 • ☎ (044) 201-4007, 4008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6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공기관 유휴부지, 택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.

- 수도권 철도·도로 등 공공 유휴지 29개소 생활물류시설로 공급 -

-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코로나-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,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·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.
 - 앞서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·공공기관·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‘생활물류 협의체’를 구성하여,
 - *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한국도로공사, LH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코레일, (주)SR, 서울교통공사, 통합물류협회 등 참여
 -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(10개소) 및 지하역사(4개소), 광역·일반철도역 유휴지(10개소) 및 철도교 하부(1개소),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(3개소) 및 폐도부지(1개소) 총 29개소, 12.5만 m²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하였다.

- 국토부·공공기관 합동으로 해당 29개 유희부지 대상 물류업계 수요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 상황 등 부지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부지는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며,
 - 진입도로 설치, 부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공공 유희부지는 '2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.
- 대상 부지는 업계 수요, 부지 규모·특성, 공급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택배 지원 물류시설(서브 터미널, 분류장 등) 중심으로 공급하되,
 - 지하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·물류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유희부지에 대한 공공기관·물류업계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,
 - 관계기관 합동 평가·선정·운영 등을 위한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택배업체 등에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“생활물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희부지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고 밝혔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 <small>공중표시</small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임승규 사무관(☎ 044-201-40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	---